



+ 찬미예수님! 저는 2018년 2월부터 익산시 용안성당에서 본당 사도직을 하고 있는 진안속까리따스 수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시절을 보냈던 곳이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시골이어서 집근처에 성당이 없고 개신교, 원불교에는 친구나 언니를 따라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알게 된 것은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학교 옆에 전동성당이 있고, 제가 다니는 성심여고가 천주교전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성심여중과 성심여고가 한 교정 안에 있는 여학교이어서 교사로 수녀님들도 있었습니다. 고1때 수업하러 교실로 가는 수녀님을 멀리서 보면서 '수녀님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한 적이 있었으나, 여고시절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

어요. 1978년 2월 졸업식을 하는 날 성심여학교를 떠나는 졸업식장 강당에서 한없이 눈물이 났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학교를 나오면서 성모동산에 성모상 앞을 지나면서 신자가 아니어서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서 마음으로 '성모님! 10년 후에 다시 오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리고 교정을 떠나왔던 때가 기억납니다.

대학 4학년 때 아버님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마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무렵 지금 저의 대모님께서 '학생 성당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곧바로 '예! 교생실습마치고 가겠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1981년 12월 성탄대축일에 세례를 받았고, 열심한 대모님 따라서 평일 미사를 다니면서 미사 시작 전에 성체조배를 하고 미사에 참여하기를 수녀원 입회 전까지 계속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교우들이랑 저를 아는 분들이 '수녀원 갈거냐?'는 질문을 하곤 해서 성소피정을 서울에서 2~3곳 수녀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친구를 따라서 1985년 1월 15일에 저희 수녀원을 처음 방문하여 성소자담당이신 나영화 수녀님과 이신자수녀님을 뵈고, 입회는 2월 16일에 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큰 행운이었어요. 1988년 2월 2일 종신서원식이 있었던 날, 저는 2수련기 파견을 앞둔 시기에 수련장이신 이신자수녀님께서 전주성심여중에서 과학교사를 뽑으니 이력서를 내고 오라하셔서 이력서를 내고 본원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놀랍게도 제가 여고를 졸업한지 꼭 10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가 성모님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린 기도가 이루어진 그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9년 중1담임을 하면서 사진에 있는 우리반 아이들을 교리교육을 맡아 세례식 하고나서 찍은 18명의 어린친구들 모습입니다. 첫 사도직은 전주성심여중에서 과학교사로, 그 후 본당사도직(6개 본당에서 약 14년째 활동 중입니다), 광주교구청에서 6년 사회복지위원회, 중남부교육관(피정사도직 1년), 사랑의 일터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강진군다문화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7년 동안 활동해왔습니다. 현재 사도직하는 용안 성당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아서 한 달에 한번 신부님과 제가 나누어서 봉성체를 가는데 약 40

분 정도 됩니다. 학생들은 아주 조금 있어요. 초동학생 5명을 첫영성체 준비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골이라서 예비신자도 아직 없구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본당 내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2018년에 5번째 장례미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도직을 하면서 비신자들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 가장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당사도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Praise to Jesus! My name is Sr. Jin, Ahn Suk and I am working in Yongan Parish. I was missioned here in February 2018. My baptismal name is Caritas. I spent my school days in Jeollabuk-do, Gochang-gun, which is countryside, and there was no Catholic church near my house. Instead I visited Protestant church or Won-Buddhism temple with my friends and sisters. I learned about Catholicism because I entered the Jeonju Sacred Heart Girls' High School. This school belongs to Jeonju diocese and there were some sisters who were teaching middle and high school. I had a vague idea of being a sister whenever I saw a sister going to a high school classroom from afar in my first year there. I cannot forget the day I cried a lot leaving school after graduation ceremony in February 1978. As I

walked out of the school, I passed in front of the statue of Blessed Virgin Mary in the Garden, and I was not a Catholic, so I could not look straight at her and just passed by. I still remember that I told Mary that I wanted to come back here in 10 years.

When I was in the fourth year of college my father passed away suddenly. I was sad and pained not knowing what to do. And my godmother asked me to go to church and I told her that I would go after finishing my teacher practice. Finally I was baptized on Christmas day in 1981.

With my godmother I used to go to daily Mass, and adoration of the Blessed Sacrament. Seeing me, many people asked me if I wanted to be a religious sister. And I

visited several convents in Seoul to participate in vocation retreats. With my friend I visited our sisters,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on January 15th, 1985. I met Sisters Na, Yong Hwa, a vocation director at that time, and Lee, Shin Ja. I entered the community on February 16. Right before being missioned as a second year novice, I was asked to submit my resume to the Sacred Heart Girls' Middle School for teaching science. On my way home, I was reminded of the day I graduated high school ten years before. I was grateful to know that my wish of coming back was fulfilled and Blessed Mary answered my prayer. My heart is still rejoicing.



This is the picture of my eighteen students who received Baptismal Sacrament. I taught Catechism to these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My first ministry was a science teacher at Sacred Heart Girls' Middle School in Jeonju. Since then, I was missioned as a member of Social Welfare Committee of Gwangju Diocesan Office (6 years), worked in retreat house (1 year), and was involved in social welfare ministry (in Gangreung, Jaecheon, and Gangjin- for 7 years), and parish ministries (total 6 parishes for 14 years). The Yongan Parish where I am working now is a small and

has many elderly people with no RCIA people. Once a month Father and I visit around forty people for the Sacrament for the Sick, I am so sorry for this situation of the parish. Fi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preparing for first communion. The parish has its own funeral home and we already had five funeral mass. Reminding myself that in the work I do to lead all the people whom I meet to become His children is to give glory to God, I devote myself to my parish ministry.

